이 마음도리 알려면 나조차 공해서 없다는 도리를 알아라

☞ 19면에서 계속

이 세상에 작고 큰 것이 하나 버릴 게 없는 거를 알려면 하나도 가질 게 없는 걸 알아야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걸 알 수 있다. 어쩌면들 그렇게, 귀신 짓은 너희가 다 하면서…. 나도 가톨릭에 입교해 봤다. 고해성사를 할 때 누구더러 고하느냐 이거야. 신부더러 고하지? 그런데 네가 사람을 죽이고 가서 고한다면 사람 죽인 그 자체의 네 마음이 지워지더냐 이거야.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사람 죽인 그 자체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거야. '아무 때 연분에 내가 이렇게 했지.' 하는 건 은근히, 아니 세세생생에 아마 자기가 잊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좋은 일을 해도 그렇고 나쁜 일을 해도. 그런데 누구한테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리고 타의에서 구하는 자는 자의를 찾지 못하고 발견하질 못해. 그런데 아니 타의에다 모두, 자기가 잘못해 놓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곤 갖다가 거기다 맡겨? 맡긴다고 맡겨지는 줄 알아?" 그랬습니다.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고 컴퓨터가 있다 이겁니다. 자동적인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는데 거기에 숙명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숙명통, 천이통, 천안통 또 타심통, 신족통이 다섯 가지가 있죠. 그런데 내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죠, 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천체망원경 또는 팩스, 신족통 또는 타심통, 탐지기 또는 무전통신기, 천이통. 또 숙명통, 이거는 과거를 아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그럽니다. 이 다섯 가지를 그렇게 컴퓨터로 표현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거는 모두 부수적으로 네 가지가 붙어 있지만 숙명통에 의해서 컴퓨터다 이거예요.

그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부합이 되게끔 만드는 건 과거에 살던 하나하나가 거기 속기로 쓰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빨리 거기에 입력이 된다 이겁니다. 금방금방 하는 대로 입력이 돼요. 지금도 입력이 되면 지금 현실에 살면서 그 입력된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입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돼 있는 그 자체를 다시, 지금 현실에 나와서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닥치는 대로, 거기 입력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니깐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해 넣는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한 구멍으로 나오는 거를 한 구멍에다 도로 놔라." 하신 겁니다. '너희가 한 구멍에서 나와서 일체 만법을…, 일체 만물이 모두 살고 있고 또 한 구멍으로, 육근 육진 육식으로 인해서 이것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또 거기 한마음에서 다 나간다.

그러니 들어오고 나가는 고장이 한곳이거든, 한곳. 법륜 마크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법륜 마크가 바로 그 오신통 자체,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굴리고 사는 그것이 바로 법륜 마크예요. 여러분이 달고 다니지 않아도 벌써 사람만 봐도 그게 바로 법륜 마크거든요. 법바퀴란 말입니다, 모두. 여러분이 법바퀴예요.

그렇게 언짢은 거, 병고, 무슨 유전성, 모두 나오는 게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예이 이놈아, 영원한 친구야! 네가 거기에서 그렇게 전부 한 대로 지금 현재에 나오는 거니까 네놈이 다 알아서 해결해라.' 하곤 그냥 거기다 되놓는다면…. 여러분! 카세트에 입력된 거를 한번 지워 보신 일이 있으시죠? 여기 다 있을 겁니다, 아마. 노래를 듣다 듣다 그게 진력이 나면 다른 노래를 거기다 넣느라고 지워 보셨죠?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요것이 좋다가도 언짢을 때가 있거든요. 언짢을 때 가차 없이 그냥 거기다가 맡겨서 입력을 해 버리면 앞서 입력한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자 운명이 거기 왜 붙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팔자니 운명이니 무슨 병고니 하는 게 붙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 관습에 의해서, 나라는 아집에 의해서, 아상에 의해서, 아니 우리가 생각들 하는 게 전부 망상이라고 자칭하면서, 글쎄, 망상이래요, 허허허. 생각하는 것들이 망상이라나요? 무슨 망상입니까? 그건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수련 대상입니다, 생각이 자꾸 나는 게. 그런데 그게 왜 망상입니까. 망상은 끊으려고 해 봐도, 여러분이 죽어도 망상은 끊지 못할 겁니다. 칼로 물 베기지 그게 끊어집니까? 그게 끊어진 뒤에 공부하시려고요? 어림반 푼어치도 없죠.

용광로에다 헌쇠니 새 쇠니 끊어진 거니, 그냥 모든 걸 갖다가 용광로 불 속에 넣으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서 새 쇠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산이 돼서 나온다는 생각을 말고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 넣기만 하라는 거죠. 생산이 돼서 나오는 거는 걱정하지 말아야죠. 작업을 한 작업만 하면 두 작업 세 작업이 다 저절로 돼 나오는데 왜 한 작업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그 못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나라는 게 있고, 아집이라는 게 있고, 내가 안다는 게 있고, 내가 이게 옳다는 게 있고…. 그건 자기 그릇이죠. 종지도 제가 옳다고 그럽디다. "아니, 나도 한몫하는 사람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종지야, 너 뭐를 한몫하느냐?" 그러니까 "아, 간장 담을 때 한몫하잖아!" 그러거든요. 하하하. 하나도 틀림없어요. 이 도리를 알려면 모든 것을, 나조차도 공해서 없는 도리를 알아라 이겁니다, 나조차도.

> 남이 잘못했다 잘됐다를 떠나서 자기 탓으로 돌려라.
> 이게 바로 나 발견하는 데 극치적으로 열반 길을 걸어가는,
> 망상을 끊지 않고 열반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 이유가 붙지 않는 자리다.

왜 무상하다고 하느냐. 부서지고 변해지고 죽고 또는 모두가, 이 물질적인 면에 있어선 하나도 그대로 있는 게 없어요. 인간도 그대로 있질 않아요. 내가 늙었을 때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젊었을 때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거든요. 네? 내가 했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해 줬다, 그리고 또 남이 잘못했으면 원망을 하고 증오하고 이러거든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지, 아니 자기가 안 나왔다면 그렇게 상대가 있을까요?

그러니 잘못했다 잘됐다를 떠나서 자기 탓으로 돌려라. 이게 바로 나 발견하는 데 아주 극치적으로 열반 길을 그냥 걸어가는, 망상을 끊지 않고 그냥 열반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이유가 붙지 않는 자리죠. 이유가 뭐가 붙습니까? 그르다 좋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이 붙으면 벌써 이 공부 하긴 틀렸어요.

왜 우리가 또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보세요. 우리는 지금 미래의 정신세계의 노예가 돼서 어떻게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빈집으로서 노예 생활을 한다면, 이 지구라는 우리 집도 주인이 없으면 망가지게 돼 있고 우리 몸뚱이도 내 중심이 없고 주인이 없다면, 한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집도 망가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육을 부모한테 받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기 영혼이, 즉 말하자면 거기에 개입이 돼 가지고 어머니의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빌려서 한 몸을 받아 가지고선 자기 영혼이 자기 과거에 살던 업적, 인과하고 같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합이 한데 합쳐지니깐 그걸 삼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신! 어머니의 신, 아버지의 신, 자기의 신 이렇게 해서 삼신이 들어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삼신을 받는데 어디로 삼신을 받으러 다닙니까, 글쎄. 나 원 참!

공자님 어머님도 삼신을 받는데, 자기의 육신을, 살을 빌리고 우리 영감의 뼈를 빌려서 몸 하나를 이렇게 바칠 테니 좋은 영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6년 동안 기다리면서 아무리 골라 봐도 좋은 영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마 만날 지금의 유교처럼 믿고 불교는 숭상 안 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돌았던 모양입니다. 거기서도 그랬던 모양이죠, 그때 당시에. 6년째 다녀도 소식이 없으니까 '에이, 이깟 놈의 것! 뭐, 내가 아무리 믿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선 포기했죠. 7년 만에 꿈을 꾸니까 그 산 부처님이 하는 소리가 "얘야, 네가 좋은 영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는 온통 고르느라고 내가 애를 쓰고 골라 봤는데 지금 7년 만에 그저 쓸 만한 영이 하나 들어왔으니 오너라." 이렇게 꿈에 나타난 겁니다. 꿈도 생시고 생시도 꿈이거든요. 마음으로 전달을 하니까 이심전심으로 그 사람 꿈으로다가 그냥 받은 거죠,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부랴사랴 부랴사랴 7년 만에 가서 임신이 된 것이 바로 공자님이시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살면서 자식을 낳기만 했다고 자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아마 손살피 더 잘 아실 겁니다. 자식의 인연을 갖는 것도 끼리끼리들 자식의 인연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차원이 높으면 차원이 높은 영가가 내 자식이 될 것이고, 또는 내 부모가 될 것이고, 만약에 차원이 낮으면, 장 종지라면 장 종지밖에 더 될 겁니까? 깡통은 깡통끼리 모이고 배는 배대로 모이고 사과는 사과대로 모이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이고 지게꾼은 지게꾼대로 모이는데, 지금은 지게꾼이 변해서 저 트럭 운전수들 있죠? 그이가 지게꾼이 돼 버렸죠. 그래 트럭 운전수에게 왜 지금 지게꾼 노릇을 안 하고 트럭 운전수를 하느냐고 항거한다면 그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부처님이 지게꾼 말씀을 하셨는데 왜 당신은 트럭 얘기를 하느냐고 나더러 이러거든요. 그런 사람 있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지게꾼 얘기를 하지 어째서 트럭 얘기를 하느냐 이 소리죠. 시대가 그만큼 변해서 그 지게꾼이 트럭 운전수가 됐는지도 모르고 지게꾼 얘기를 아무리 해 봐도 지게꾼은 지금 많이 없어져서 자라나는 사람들한텐 지게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하신 거를 지혜가 있으면 바꾸어서 써야죠.

어떤 스님께서 세 제자한테 금 한 덩어리씩 주면서 "야, 3년만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늘궈라." 그랬더니 그거 없어질까 봐 한 놈은 장 속에다 넣고 그냥 꼭꼭 싸 놓고 있고, 한 놈은 장사를 해서 기껏 늘쿠고 또 한 놈은 그걸 가지고서 이자를 놨구요. 그래서 불린 놈은 상을 받고 장 속에다가 꽁꽁 넣은 놈은 하나도 분지를 않고 그냥 고것만 가지고 있다가 상도 못 받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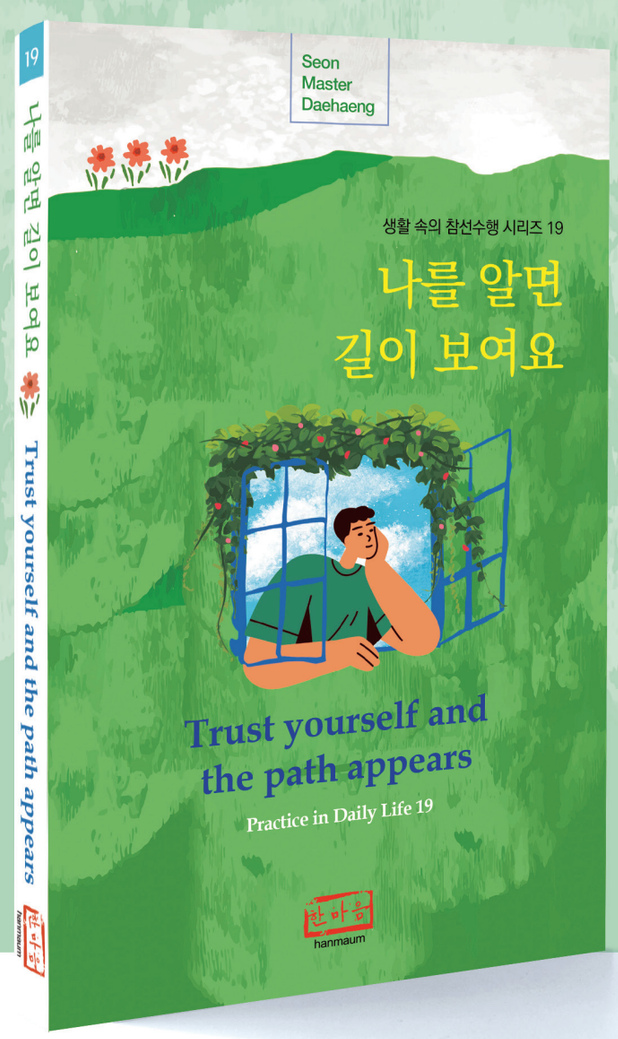
이런 이치가 있듯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셨어도 그 좋은 말씀을 응용해서 뜻을 잘 받들어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로구나 하고 알게끔 해 줘야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리요, 불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 된 본의도 있고. 중 된 본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불자입니다, 나와 더불어 같이.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4월 28일 국내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